

인물평가 형용사에서 준거에 따르는 중화경향

이 수 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인물평가 형용사의 호오도가 주어진 준거의 호오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얻어진 결과는 준거와 자극어의 거리가 적을수록 자극어의 호오도는 중성화하였으며, 거리가 클수록 양극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양극에서의 방향은 준거가 자극어의 호오도보다 클 때는 부적인 방향으로 이와 반대에서는 정적인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고 실험에서 설정한 준거는 피험자가 갖고 있는 준거에 대한 마음갖춤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반응감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이 결과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마음갖춤새에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심적현상을 관계태 (Relatum) 로서 보려는 Whitehead (1925) 이후의 근대의 연구들은 자기 원인적인 실체로서의 현상과약은 무의미하며 자극과 준거의 관계태에서 이를 밝히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각과 같은 심적현상을 자극과 준거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현상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에 이르렀다(Woodworth, 1954). 아울러 자극과 준거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는 달리 자극과 준거 사이의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추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수원(1969)은 배경이 주어지어야만 지시적 의미가 부여되는 수량형용사에서 배경의 크기에 따라 자극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크기가 다른 배경들이 한 단어에 입장에서 같은 기능을 갖는 범위를 찾아 내었다. 경험적으로 한 자극이 주어질 준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는 오직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같다. 하나는 자극에 대한 준거로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을 때이다. 주어질 자극에 준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준거들 사이에서도 자극과의 관계에 따라 계층

이 정해질 수 있다 (조명한 1969). 둘째는 자극의 수준과 준거의 수준이 일치하여 영향을 주고 받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이다. 심적 현상을 자극과 준거사이의 관계로서 도착하는 한 위의 두 경우에 심적현상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반응은 중성화할 것이다.

준거와 자극의 수준이 일치하여 준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응이 중성화한다는 후자의 가정은 적어도 몇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반응의 감소로서 순응현상을 보고 있는 Helson (1964)은 그의 이론에서 생리적 영점과 유사한 개념인 순응수준과 동일한 자극이 오면 중성적이거나 혹은 무분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순응수준은 준거의 일종으로서 자극과 준거가 일치할 때 자극의 의미는 중성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거로, 감정은 기대수준과 동일한 자극의 강도에서는 중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 수준에서 이탈된 자극이 오면 처음에는 쾌감이 나타나다가 강도가 커지면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는 McClelland (1955)의 동기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어질 자극이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준거로서의 기대수준과 일치되기 때문이며 자극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금호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새책 근거는 반복되는 자극에 의하여 점차 자극의 의미가 사라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포화 및 습관화를 통하여 지저되는 것 같다.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의미중단성이 높다는 공식화로는 이 현상에서 논리적 모순에 빠지며, 오히려 자극에 반응할 때 에너지 방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는 유기체의 경제법칙(Freeman, 1948)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반응을 줄이려는 방법의 하나로 유기체의 수준과 자극의 수준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고려될 수도 있다. 이들 근거들에서 중성반응은 자극과 준거의 유대관계가 없을 때에만 나타난다고 풀이할 수 없으며 준거와 자극이 일치될 때에도 준거의 영향을 벗어나서 반응이 중성화 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바침 받는다.

이 논문에서는 자극의 수준과 준거의 수준이 일치할 때 반응은 중성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자극과 준거의 속성이 동일 차원상에서 나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준거로서는 역사적 인물들, 자극으로서는 인물평가 형용사를 채택하였다. 평정은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극을 평정하는 준거로서 주관론 개입시키지 않고 역사적 인물만을 준거로서 채택하도록 하였다.

방 법

자료. 사용된 자료는 먼저 자극어로 채택된 인물평가 형용사 14 개 있다. 그 중 7개의 자극어는 의미분법의 익능차원에 해당되는 「똑똑하다—못나다」 차원상에 배열되는 것이며, 나머지 7개의 자극어는 평가차원에서 「착하다—악하다」 차원상에 배열되는 것으로 뽑았다. 이들 단어의 호오도(favorableness)는 인물평가 형용사 호오도 측정(윤호운, 1970)에서 구하였는데 익능차원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호오도 값은 5.64 부터 0.85까지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평가차원은 5.63 부터 0.8의 범위의 값을 가졌다. 실험에서 설정된 준거에 대한 정의는 Helson(1964)을 따라 판단장면에서 자극과 동일한 심리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자극과 동시에 제시된 모든 환경으로 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준거는 우리나라 고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모두 10명이었다. 이들의 선택은 ① 익히 알려진 인물이며, ② 성격이 뚜렷한 존재이며, ③ 호오도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인물만을 선택하였다. 이들 10명의 인물은 평가차원 5명, 익능차원 5명씩 나뉘어서 그 차원에 알맞는 성격을 가진 인물을 골랐다. 이들 인물의 호오도는 등현간격법으로 구성된 척도를 가지고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로부터 실험 실시 전에 측정하였다. 평가차원의 인물의 호오도 값은 5.19부터 0.29의 범위에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익능차원의 인물들은 5.53부터 1.26까지의 범위에서 분포되어 있다.

피험자. 피험자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175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피험자들을 무선화법을 통하여 한 집단에 25명씩 7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절차. 모두 14개의 자극어가 10개의 준거에서 판단되었다. 각 집단은 각 차원에서 한개의 자극어와 5개의 준거씩 모두 2개의 자극어와 10개의 준거가 할당되었다. 한 집단에 한 차원에서 한개의 자극어만을 판단케 한 것은 여러개의 자극어를 동시에 판단할 때 야기되는 전이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제시방법은 하나의 준거와 하나의 자극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든 후에 이들 문장을 짝으로 제시하였다. 평정방법은 두쪽의 문장중에서 보다 더 호의적인 형용사를 비교 판단케 하는 일대비교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각각의 준거와 자극어는 크기에 따라서 무선적으로 배열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준 지시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가지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식어는 그를 평소에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라도 그를 호의적으로 느낄 때와 비호의적으로 느낄 때 당신이 사용하는 수식어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에는 우리나라 고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평가한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글 안에 인물을 얼마만큼이나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요령은 짝으로 된 두개의 글 중에서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글 앞 빈칸에 "○"표를 하십시오. 반드시 제일 먼저 머리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 주십시오. 이 연구는 여타분이 일상대화에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의 개념을 알아 보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정확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 과

얻어진 자료는 각 준거 및 자극어 별로 일대

에서 준거의 크기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자극어의 호오도가 커지고 있다. 대체로 위의 결과에서 준거의 크기는 자극어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은 자극어와 준거를 동일 차원에다 놓고 이 둘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탐색하려는 것이었다. 그림 1은 자극어의 호오도와 준거의 호오도 사이에 거리에 따라 평정에 미치는 효과를 각 차원에서 구한 것이다. 평가차원에서의 적률상관계수는 $r = -.67$

표 1. 역능차원과 평가차원에서의 준거에 따르는 호오도

준 거	홍길동 (5.53)*	김신달 (5.22)*	윌 데 (3.30)*	심봉사 (2.65)*	은 달 (1.26)*
평 균 치	-2.99	-1.21	- .26	0.24	0.87
역능					
표준편차	2.15	1.75	2.19	1.94	2.33
표준오차	0.81	0.66	0.83	2.73	0.89
	심 청 (5.19)*	홍 부 (5.18)*	김삿갓 (4.18)*	놀 부 (0.42)*	변삿도 (0.29)*
평 가 평	-2.90	-2.69	- .47	1.94	2.39
평가					
표준편차	2.56	2.29	2.17	2.19	2.11
표준오차	0.97	0.87	0.87	0.83	0.79

*실험에 앞서 측정된 준거의 호오도이다.

비교법 자료처리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였다. 준거가 다른 역능 및 평가차원은 따로 처리 하였다. 준거를 무시한 평균 자극어의 호오도는 실험에 앞서 측정된 자극어의 호오도와 거의 같게 나왔다. (평가차원 $r = .89$, 능력차원 $r = .87$)

준거의 크기에 따르는 평균 호오도가 표 1에 적혀어 있다. 각 통계치는 한 차원에 속하는 7개 자극어의 호오도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준거가 자극어에 미친 영향을 차원에 따라 검증하였다. 평가차원에서의 변량분석의 결과는 준거에 따라서 호오도의 차가 의의있게 나왔다($F=7.26$, $df=4/30$, $P < .05$) 반면에 역능차원에서는 의의가 없었다. ($F=3.518$, $df=4/30$)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첫째 준거들의 호오도가 동간적이 못되었으며, 둘째 이질적인 자극어들의 호오도가 집단내 변량을 크게 한 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뒷바침해 주는 것으로 표 1

이며 역능차원에서는 $r = -.78$ 에 상호 높은 관계가 있음이 들어났다. 자극어와 준거의 일탈의 정도는 직접 평정에 영향을 줌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극어와 준거의 크기의 방향과 자극어와 준거의 거리에 두가지 측면에서 t 검증을 하였다. 크기의 방향은 자극어의 호오도가 준거의 호오도보다 더 클 때와 더 작을 경우의 부력으로 나누워서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자극어가 준거보다 클 때는 정적(호의적) 방향으로 평정됨이 더 작을 때는 부정(비호의적) 방향으로 평정됨을 예측할 수 있다. 비교의 결과는 역능차원에서 $t=6.23$, $df=34$, $P < .001$ 이며 평가차원에서 $t=7.56$, $df=34$, $P < .001$ 로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극어와 준거의 거리는 자극어의 호오도와 준거의 호오도의 차이가 얼마나 양극으로 일탈되어 있는 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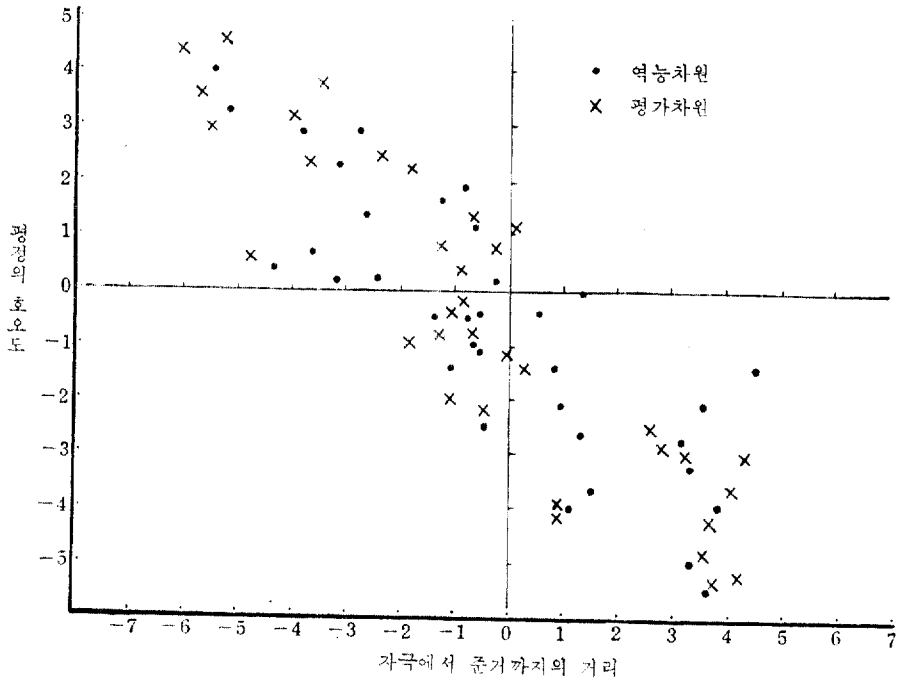


그림 1. 자극어와 준거의 거리에서 본 평정의 호오도

비추어 2 부력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1에서 자극어와 준거의 거리가 역능 및 평가 두 차원에서 똑같이 ± 2 를 중심으로 부력을 나누었다. 평가차원에서의 결과는 $t=6.2$, $df=34$, $P<.001$ 였으며 역능차원에서는 $t=7.24$, $df=34$, $P<.001$ 로 두 차원에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자극어의 준거의 호오도상의 거리가 크면 클 수록 준거의 영향을 받은 자극어의 호오도도 따라서 커지며, 거리가 작을 수록 자극어의 호오도는 중성화 혹은 사라지간다.

아울러 위의 자료를 가지고 준거의 성질을 좀 더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험자 각 개인의 준거인물에 대한 호오도의 정도와 그의 자극어 평정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준거는 객관적인 준거인데 반하여 각 피험자가 갖고 있는 준거인물에 대한 호오도는 주관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주관적인 준거와 평정 사이에 유관계수를 내어 본 결과 평가차원에서 $C=.68$ 이며, 역능차원에서 $C=.50$ 이 나왔다. 이 계수는 유관계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높은 상관계수로서 볼 수 있다.

논 의

자기를 도구로 하여 세상을 본다는 현상학적 흐름(Snygg, 1941)이 심리학에 도입되면서 실체의 존재를 거부하고 관계태로서 실적현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표 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준거와 결부하는 가에 따라서 자극어의 의미는 달라지었다. 이것은 자극과 준거사이에 함수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결과이다. 또한 이를 뒷바침하는 것으로 준거가 자극어에 미치는 영향은 일탈의 방향에 따라서 양극으로 나뉘었다. Helson (1964)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순응수준보다 높은 자극이 오면 정적반응을 일으키고 낮은 자극이 오면 부정반응을 일으키었다. 행동의 양극성은 여러 이론에서 기술되고 있다. Lewin (1951)의 정적유인가와 부정적유인가, Pavlov (1927)의 촉진과 금지의 개념 및 Miller (1959)의 접근과 도피제층에 대한 생각들은 좋은 예가 된다.

양극 사이에는 반드시 중립지대가 있다. 일찍

기 Hess (1924)는 지렁이가 일정한 강도의 빛을 쬐이면 도피하고 보다 부드러운 강도에서는 집근하고 그 사이에 어떤 강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역사적으로 중립지대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극반응경향을 의미 중립성으로 보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병리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O'Donovan, 1965). 이 논문의 서두에서 중성반응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심적현상을 준거와 자극사이에 관계에서 포착하는 한 중성반응은 준거와 자극이 무관할 때와 일치할 때에 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후자에 대한 가정이 검증되었다. 준거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은 자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성반응을 일으키었다. 준거보다 높거나 낮은 자극에서만 반응이 유발된다. 자극과 준거의 일치에서 오는 중성반응은 자극과 준거가 무관하여 나타나는 중성반응과는 외현적으로 볼 때 같은 반응형태를 보여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음은 논리적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준거와 자극이 무관하여 나타나는 중성반응은 자극의 존재에 대하여 식별능력이 없으므로 나타나는 것이며, 준거와 자극이 일치하여 나타나는 중성반응은 준거가 바로 자극이기 때문에 가장 자극을 잘 식별할 수 있는 단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극반응경향에 대한 논쟁은 중성반응에 대한 두가지 해석사이의 혼란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반응감소 현상은 반복되는 자극에 의하여 준거로치의 유기체가 자극과의 유대관계를 점차 끊어버리는 과정(Kanungo 등, 1964)이 아니라 자극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음직 하다. 물론 이와같은 해석은 심적 각아를 신체의 피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피부 밖에 대상에게로도 자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서야만 가능하게 된다.

왜 준거와 자극이 동일과정중 거쳐서 중성화되어 가는가 하는 물음은 두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먼저 Freeman (1948)의 생리적 균형 혹은 에너지 평형 개념에

서 찾을 수가 있다. 유기체는 주어진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같은 효과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복하기 위하여 유기체는 주어진 자극을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극을 향하여 유기체 자신이 닮아가므로서 자극이 자극이 되지 않는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소극적 회피에서 자극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둘째로 Thouless (1931)가 말한 절대적 대상으로의 현상적 복귀의 개념에서 시사를 얻을 수 있음직 하다. 심적현상을 관계태에 의해서만 해석하려 할 때 현상은 항상 상대적인 자원을 벗어 나지 못한다. 준거에 의해서 채색되지 않는 대상이란 있을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유기체는 성장하면서 준거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단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절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현상이 지각의 항상성이다. 또한 이 때 우리는 채색되지 않은 대상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대상을 준거에 채색되지 않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우리의 연구에서 자극과 준거의 합일에 의하여서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때에 유기체의 반응은 중성적이었다.

우리의 결과는 중성반응에 대하여 결론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거와 자극의 수준이 일치할 때 이 양자가 무관할 때와 같은 중성반응이 나타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두 중성반응의 성질은 서로 다를런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결과처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객관적 준거란 피험자가 준거에 대하여 갖는 마음갖춤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었다. 물론 준거인물의 호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란 피험자들의 평정을 종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피험자의 마음갖춤새와 높은 상관관을 갖고 있으리라는 점은 미리 짐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통하여 적어도 피험자가 평정에 임했을 때 주관평정에 영향을 주는 준거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준거가 아니고, 그 객관적 준거에 대한 피험자의 마음갖춤새가 자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이 추측이 가능할 때 우리는 아레와 같은 가정을 가지고 유기체의 마음갖춤새

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자극과 준거가 일치하여 중성반응이 유발될 때 유기체가 갖는 준거에 대한 마음갖춤새는 대응하는 자극이다.

참 고 문 헌

윤호윤. 한국어 형용사의 호오도 측정 :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1970, 16, 113-116
 이수원. 수량형용사에서의 배경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969, 2, 62-67
 조명환. 연상적 의미와 우리말 연상사건의 작성, 신문연구소학보, 1969, 6, 49-63.
 Freeman, G.L., *The energetics of human behavior*, Ithaca; Cornell Univ. press, 1948.
 Helson, H., Current trends and issues in Adaptation-Level theory, *Amer. Psychologist*, 1964, 26-38
 Hess, W., Reactions to light in the earthworm, *J. morphol. physiol.*, 1924, 39, 515-542
 Kanungo, R. & Lambert, W. E., Effects of variations in amount of verbal repetition on meaning and paired associate learning, *J. ver. lear. ver. beh.*, 1964, 3, 358-361
 Lewin, K.,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s*, New

York: Harper, 1951
 Miller, N.E., Liberalization of basic S-R concepts: Extensions of conflict behavior, motivation and social learning,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2, New York: McGraw-Hill, 1959.
 McClelland, D.C., Notes for a revised theory of motivation, In McClelland, D.C. (Ed.) *Studies in Motiv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5.
 O'Donovan, D., Rating Extremity: pathology or meaningfullness? *psychol. Rev.*, 1965, 72, 358-372
 Pavlov, I.P., *Conditiond Reflexes*, (Ed. & Trans., by C.V. Anrep) London; oxford univ. press, 1927
 Snygg, D., The need for a phenomenological system of psychology, *psychol. Rev.* 1941, 48, 404-424
 Thouless, R.H., Phenomenal regression to the real object, part I, *Brit. J. psychol.*, 1931, 21, 339-359
 Whitehead, A.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Macmillan, 1925.
 Woodworth, R.S. & Schlosberg, H.,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Holt, 1954.

A STUDY ON NEUTRAL RESPONSE TENDENCY AS A FUNCTION OF CONTEXTS IN PERSONALITY-TRAIT ADJECTIVES

SOO 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tendency for evaluations of personality-trait adjectives to be displaced as the favorableness of context variables. 175 Ss, divided at random into 7 groups by context variables, judged the 14 stimulus words in 10 contexts. Results indicate that the favorableness of contexts were

directly related to those of the stimuli.

- 1) The favorableness of stimulus decreased, as the context increased.
- 2) When the favorableness level of stimulus was accorded with those of contexts, the evaluation of the stimulus was neutralized.